雜記文學論序說

金　錫　夏*

雜記라고 하면 흔히 雜文의 一種으로 所謂 正統的이며 本格的인 文學, 말하자면 詩, 賦, 論, 策과 같은 것이 아닌 餘他의 文章을 지칭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雜文, 雜著, 雜錄, 隨錄, 漫錄 등은 非文學的 文章으로 통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現代文學의 見識이나 方法만으로 古典文學을 다루웠던 一部層의 잘못된 생각이며 또 한편 雜字의 皮相的 해석에 因한 誤解에 基因하기도 한 것이다.

大概 雜의 字義가 雜人, 亂雜의 경우는「쓸데 없다」「俗되다」또는「헝크러지다」「어지럽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마는 雜의 一義的인 의미를 說文에 의하면「五采相合也」라 해서 여러 색이 서로 合해 있다는 뜻이고 이로부터 合, 集, 叢, 聚의 뜻이 되었고, 二義的 意味는 작은 것, 또는 자자구레한 것 등을 뜻하여, 易의 繫辭下에「其稱名也 雜而不越」라든가, 宋史 張數傳의「性不堪雜」의 경우와 같이 雜碎함을 말한다. 그밖에 雜은 皆, 僉, 總, 多, 全과도 通하는 字이다. 그래서 雜考라면 모든(總括)考察을 뜻한다. 結局 雜의 뜻은 正에 대한 俗과 傍의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細, 小, 叢, 合, 集등의 뜻이 있어 雜錄이라고 하면 자잘구레한 記錄을 말함이요 雜文이라고 하면 여러 文體로 된 짧은 글들을 말하는 것이며 雜記라고 하면 逸事를 蒐合한 記事集을 말한다. 漢文體에서 雜文이라고 하면 諸種의 文體로 된 文章形式이어서 基本文體로 쓰이었다. 唐書 選擧志에「進士試雜文二篇通文律者然後試策」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雜文은 重要한 基礎的 基本文章形式으로 보여진다. 雜記는 斷片的 小話의 叢集으로 中國에서는 葛洪의《西京雜記》같은 것이 일찌기있었으며 禮記에도「雜記篇」이 보인다. 또 雜詩라고 하면 王粲의 雜詩 注에 言及한 바와 같이 雜者不拘流例 遇物即言의 詩를 말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雜文 雜記의 內容은 짤막짤짤막한 작은 이야기나 自由文體로된 글을 集結한 叢集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雜記는 內容이 五采相合하듯이 매우 多岐多樣할 수 밖에 없다. 世情風俗의 喜悲哀歡은 물론 遇物의 即興的인 감흥 그리고 文筆的評論과 閑談 虛構的 創作物에 이르기까지 雜多한 樣式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雜記文學의 多樣性과 質量이 結定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雜多한 雜記가 具體的인 題目으로 派生되면서 雜著, 雜識, 閑話, 閑談, 亂藁,

* 檀國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文博), 韓國文學

漫錄, 漫筆 등으로 表示되기도 한 것이다. 雜, 閑, 亂, 漫字는 字典的인 의미로도 相通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以上과 같은 一聯의 文章類를 雜記文學이라 呼稱함이 妥當하리라 생각한다.

雜記는 一種의 東洋的隨筆이며 韓國的 隨筆文學이다. 六朝時代 劉勰의 《文心雕龍》에서 分類한바 二十一種의 文體中 雜文이 이에 該當하겠고 淸代 姚鼐의 《古文辭類纂中》十三種 文體類型中 雜記라한 것이 이에 該當하는 것이다.

雜記의 속에는 또한 여러 갈래가 있다고 보겠는데 (1) 稗官說話類 (2) 詩文評과 詩話類 (3) 見聞, 紀行, 日記, 身邊雜記 (4) 諧謔, 滑稽, 奇談, 格言 俗談等種으로 大分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稗官說話類로서는 三國遺事의 一部. 《殊異傳》《高麗史列傳》其他 文集所載의 傳狀과 같은 것이 있겠고 (2) 詩文評과 詩話類로서는 破閑集(李仁老), 補閑集(崔滋), 白雲小說(李奎報), 益齋亂藁(李齊賢) 그리고 李朝에 와서 東人詩話(徐居正), 惺所詩話(許筠), 小華詩評(洪萬宗), 詩話叢林(洪萬宗)등이 있으며 (3)見聞紀行, 日記, 身邊雜記類로서는 慵齋叢話(成俔)謏聞瑣錄, 閑中啓齒등을 들어 볼 수 있다. 日記나 紀行文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滑稽, 奇談, 格言은 徐四佳의 《滑稽傳》《古今笑叢》 등이 있다.

稗官說話라고 하면 中國에서는 干寶의 《搜神記》와 같은 것, 우리나라에서는 《殊異傳》과 같은 것을 말함인데 現代 民俗學이나 文學의 見地에서 보면 說話라고 하겠으나 當時에는 說話라고 하지는 않았으며 雜記라고 하였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列傳이나 假傳과 같은 것도 歷史記述의 한 方法으로 쓰인 傳狀의 變形이며 이른바 雜記였다. 이 傳狀은 虛構性이 加味되면서 小說에 接近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李朝中期 魚叔權의 稗官雜記는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詩에는 原論이라 할 수 있는 詩辨과 具體的인 作品評이라 할 수 있는 詩評과 詩作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가지 逸話와 身邊雜記를 적은 詩話가 있다. 詩辨이나 詩評은 하나의 詩論 또는 原理論이며 그 樣式은 隨筆이었다. 다시 말해서 隨筆的批評, 批評的隨筆이라 하겠다. 이 隨筆的批評, 批評的隨筆은 西歐의 Critical Essay(批評隨筆)에 相似하여 知的이며 多分히 客觀的인 基準에 立脚하고 있음이 저와 類似하다. 가령 李仁老의 破閑集에 나타난 修辭主義的 批評이라든가 崔滋의 補閑集의 二十七品八病說이라든가, 李奎報 白雲小說의 達意主義 그리고 李朝에 와서 成俔의 折衷的長短批評, 徐居正 東人詩話의 用事主義, 洪萬宗 詩話叢林·小華詩評의 擬古主義와 같은 一定한 基準에서 詩作을 批評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一定 規準에 立脚했다 해도 評者의 主觀的 見解가 전혀 排除된 것은 아니었다. 詩話의 境遇는 主로 詩作의 成功과 失敗의 苦樂譚이 아니면 彼我의 身邊雜談, 逸話이기 때문에 多情한 人情의 교환이 主潮로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詩話에는 主觀的 個性의 發顯이 두드러진다. 情的인 表現이 나타나게 된다. 詩話는 個性과 主觀이 介入된 詩作을 둘러싼 雜記였다. 그러므로 詩話에는 本格的인 批評이나 創作方法論의 提示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필적인 雜談이 있을